

보도 일시	2022. 8. 30.(화) 09:00	배포 일시	2022. 8. 30.(화) 09:00
담당 부서	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	책임자	과장 배양희 (044-203-2751)
		담당자	사무관 이소진 (044-203-2749)

10월에 첫 번째 ‘공공디자인 페스티벌’ 열린다

- 10. 5.~30. 문화역서울284, 성수동 문화공간 등 전국 70여 곳에서 개최 -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박보균, 이하 문체부)는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(원장 김태훈, 이하 공진원)과 함께 10월 5일(수)부터 30일(일)까지 문화역서울284와 성수동 문화공간 등 전국 70여 곳에서 ‘무한상상, ○○디자인’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‘공공디자인 페스티벌’을 개최한다.

‘공공디자인’이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영역에 적용하는 디자인과 그 결과물이다. 주요 사례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‘옐로 카펫’과 ‘노란 발자국’, 교통안전을 위한 ‘색깔 유도선’, 범죄예방을 위한 골목길 ‘안전 비상벨’ 등이 있다.

이번 행사에서는 이처럼 일상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진해 온 사례를 소개하고, 관련 기관과 민간 기업들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.

문화역서울284에서는 디자인의 공공성을 무한 상상력으로 보여주는 주제전시 ‘길몸삶터-일상에서 누리는 널리 이로운 디자인’을 비롯해 토론회, 연수회 등을 진행한다. 성수동 문화공간 등 전국 70여 곳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창의적 적용례를 공유하고 이해의 폭을 넓힌다.

국립생태원, 현대차 정몽구재단의 ‘온드림 소사이어티’ 등 생태·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하는 기관과 기업들을 통해서도 공공디자인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볼 수 있다.

이번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10월 공식 누리집(<https://publicdesign.kr/festival>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- 붙임 1. ‘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2’ 공식 포스터
- 2. 공공디자인 활용 주요 사례



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2

무한상상OO디자인 2022.10.5.-30.

Public Design Festival 2022
문화역서울284 및 성수동 공공디자인 특구 일대
전국 공공디자인 확산 거점



공공디자인

- 주최 주관
- 문화체육관광부
-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
- 문화역 서울 284
- 후원 협력
- 국립생태원
- 국립민속박물관
- 국립한글박물관
- 문화의거리공사
- 정몽구 재단
- 마르쉐@
- THE HYUNDAI
- 민남빌딩
- LCDC SEOUL
- R
- ALC
- A.I.C.C
- University of Bucheon in the Republic of Korea

붙임2

공공디자인 활용 주요 사례

사례명	주요 내용
 <p>옐로우 카펫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린이 횡단보도 사고예방을 위해 시인성을 높이고자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설치된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물 - 주민참여형 아동교통안전 시설물이자 우리나라에만 있는 공공디자인으로 전국 900여곳에 설치 - 운전자 89.3% 감속 주행, 14.6% 차량 일시정지 및 주변을 살피는 효과 [이미지: 옐로소사이어티 제공]
 <p>노란 발자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횡단보도 신호대기 시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인도에 부착하는 발자국 스티커로, 차도와 1m이상 떨어져 신호대기 행동 유도하는 디자인 설치물 -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처음 시행 - 교통사고를 20%이상 낮추는 효과 [이미지: 굿네이버스 제공]
 <p>색깔 유도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갈림길을 가장 빠른 인지 요소색을 통해 명료한 교통 안전디자인 구현 - 유도선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노면 색상과 명도 차가 큰색(녹색, 분홍색)을 사용하여 운전자에게 효율적 정보전달을 가능하게 함 - 한국도로공사는 색깔 유도선을 적용한 이후, 교통사고 27% 감소, 72% 운전자의 만족도 향상을 이끈 성과를 보여줌 [이미지: 한국도로공사 제공]
 <p>안전 비상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범죠평방디자인의 일환으로, 안전한 골목길을 위해 안전비상벨 설치 - 안전한 공간 조성하여 접근성 향상, 공간의 모호한 기능 개선 - 동작구의 경우 안전골목 디자인 요소들을 적용하여 5대 범죄 발생률이 전년 동기 대비 28% 감소한 효과 발생 [이미지: 안전신문 제공]
 <p>장수 의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 채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기 힘든 노약자를 위해 교통사고 예방 및 무단횡단 방지용 디자인 설치물로, 신호등 앞에 설치된 접이식 의자 - 2019년 경기 남양주 경찰서 경찰관(유창훈 포천경찰서) 아이디어로 처음 도입하여 설치, 현재 전국 지자체에 2,500개 이상 보급됨 [이미지: 한국경제 제공]
 <p>슬기샘 어린이 도서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1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대상 수상작으로,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 중간세대(12~16세)를 의미하는 트윈세대에 주목한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- 기획-설계-시공까지 공간의 실제 사용자인 트윈세대의 성향을 고려하고 의견 수렴하여 진행, '유연한 공간과 비일상적인 공간의 일상화' 컨셉으로 사용자가 여러 공간을 조합해 새로운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 [이미지: ©신경섭 제공]
 <p>창원 대원초등학교 '상상의 숲'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1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최우수상 수상작으로, 아이들 선호 공간과 동선을 고려하여 70m에 이르는 긴 형태의 순환 놀이공간 -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관찰, 어린이 건축가 워크숍, 놀이 만들기 등 다양한 온·오프라인 워크숍 운영 [이미지: 텍트처 온 텍스처 제공]
 <p>국립 수목원 '숲이오래'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1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우수상 수상작으로, 국립수목원과 ㈜지음플러스가 선보인 어린이 숲 교육 공간 (숲이오래 : '숲을 오래 보존하자'와 '숲이 아이들에게 오라고 손짓한다'는 이중 의미 지남) - 기존 수목을 이전 또는 벌채하지 않고 건축물과 야외공간 자연생태 공간을 최대한 보존하며 지속가능한 가치를 보여주는 산림환경교육 시설 [이미지: 국립 수목원 제공]
 <p>'당신의 자리' 기부벤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삼표의 초강도 콘트리트와 아모레퍼시픽의 플라스틱 화장품 공병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-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심 속 비대면 휴식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함 [이미지: 삼표그룹 제공]